현대국어 선어말 {-더-}의 의미에 대하여
— 마침법의 경우[1] —

최 동 주

1. 들어가기

現代國語의 先語末 {-더-}는 여러 시상형태소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 중 하나이다. 일찍이 최현배 (1937=1983)에서 '도로생각 때매김(回想時制)이라고 불린 이래로 '未完,' '報告,' '知覺,' '斷絶,' '信憑性의 弱化,' '無責任性' 등 수많은 개념들이 {-더-}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 있다. 이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더-}의 의미 및 국어 시상체계의 규명에 기여해 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의 의미가 그 베일을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며, {-더-}의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中心的인 問題로 여겨지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더-}의 기본의미는 무엇인가?
2) {-더-}가 보여주는 마침법과 매김법에서의 문법적 제약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2]

그 동안 제시된 많은 개념들이 어느 것이나 {-더-}의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더-}의 의미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도 분명하다.[3] 그렇다면 이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의 기본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 本稿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의 基本意味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文脈的, 含蓄的 意味 및 {-더-}가 나타나는 문장들의 문법적, 화용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 즉 1)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그 목적

[1] 本稿는 『언어연구』 제 7·8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에 실었던 것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2] '마침법,' '매김법,' '이음법'의 용어는 본래 허웅 (1983: 224)에서 '맺음씨끝(語末語尾)'의 굴곡범주로서 제시된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를 轉用하여, 文末語尾(종결어미)가 나타나는 위치를 '마침법,' 관형형어미가 나타나는 위치를 '매김법,' 연결어미가 나타나는 위치를 '이음법'이라고 하기로 한다.

[3] 任洪彬 (1982: 439), 韓在永 (1986: 260) 참조

으로 한다. 2)의 문제에 관하여는 拙稿 (1988)에서 15세기에 같았던 {-더-}가 마침법과 매김법에서 각각 다른 길을 밟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4]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後稿로 미루기로 한다.

2. 이론적 바탕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時制, 相, 敍法 등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 보고, 筆者가 想定하는 현대국어 마침법의 시상체계 및 연구의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2. 1. 時制 및 時相

時制(tense)란 지시적 범주(deictic category)로서, 어떤 狀況(situation), 즉 事件(event), 過程(process), 狀態(state)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文法範疇이다(Lyons 1968: 305, Comrie 1976: 5). 따라서 시제는 時間上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deictic center)으로 하여 상황의 시간을 위치시키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을 '基準時點(point of reference)' 이라고 부른다. 본래 '基準時點'의 개념은 Reichenbach (1947: 287-298)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인데, 명확한 定義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단순히 상황의 시간을 위치시키는 기준이 되는 時點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듯하며, 상황을 보는(제시하는) 話者의 位置와도 관련되는 듯하다.[5] 일반적으로 '發話時點(point of speaking)'이 기준시점이 되지만, 발화시점이 아닌 다른 '미리 설정된 시점'(some other already established time point)이 기준시점이 될 수도 있다. 前者를 '絶對時制(absolute tense)'라고 하고, 後者를 '相對時制(relative tense)'라고 부른다(Comrie 1976: 2, 1985: 36).[6]

[4] 李翊燮 · 任洪彬 (1983 : 195-6)은 이러한 通時的 理解가 國語時制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른 길일지도 모른다고 한 바 있다.

[5] 이는 'the past events *are seen, not from a reference point* situated also in the past, *but from a point of reference* which coincides with the point of speech' (Reichenbach 1947: 289)와 같은 표현이나, 'R refers to *the vantage point from which the speaker views the situation referred to*' (Comrie 1981: 24)와 같은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6] Reichenbach (1947: 288-290)는 發話時點(S), 狀況時點(E), 基準時點(R)의 세 時點이 모든 시제에 관련된다고 하고, 英語의 過去(Simple past)를 'E, R—S,' 現在完了(Present perfect ; Anterior present)를 'E—S, R'로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兩者의 차이가 基準時點(R)의 위치의 차이에 의해 나타내어진 점인데, 이에 대해 Comrie (1981: 28-29)는 英語의 過去와 現在完了의 차이는 基準時點이나 狀況時點의 차이가 아니며, 兩者가 모두 狀況을 과거에 위치시키되 현재완료는 '과거 상황의 현재와의 관련성'을 그 의미의 일부로 포함하는 점에서 다

相(aspect)은 '상황의 內的 時間構成(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을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로서, 일반적으로 '完了相(perfective)'과 '非完了相(imperfective)'의 대립관계를 말한다. 완료상이란 '상황의 내적 시간구성을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뜻하며, 비완료상이란 '내적 시간구성을 언급하는 방법'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완료상은 외부에서(from outside) 전체 상황을 한 덩어리(blob)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것이며, 비완료상은 '상황의 내부에 들어가 바라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Comrie 1976: 3-4). 한편, 相範疇와 관련하여 '完了, 未完, 持續' 등의 개념이 논의되기도 한다. 本稿에서는 Comrie의 정의를 따라 이들을 完了相 및 非完了相이 가질 수 있는 문맥적 의미로 본다.

敍法(mood)은 학자에 따라 '法, 樣態, 樣相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Jespersen은 서법(mood)을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정의한 바 있는데(Palmer 1986: 9-10), 이에 대해 이러한 심적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적 개념은 '樣態(modality)'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本稿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여 굴곡범주(inflectional category)로 나타나는 대립을 서법(mood)이라 부르기로 한다.[7]

時制, 相, 및 敍法 範疇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相的 對立은 흔히 특정 시제(특히 과거)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고(Comrie 1976: 71), 미래시제는 서법 형태소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형태소가 동시에 여러 문법범주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가 더 기본적이고 어느 의미가 이차적인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이 구분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Lyons 1968: 317, Givón 1984: 272). 결국 상황의 시간과 관계되는 표현에는 이들 범주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本稿에서는 時制, 相, 敍法을 구분하여 부르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언급할 때는 '時相,' '時相體系'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르다고 하였다 (the Perfect includes as part of its meaning that this past situation continues to have present relevance). 이어 그는 Comrie (1985: 36)에서 發話時點은 가능한 基準時點들 중의 하나라고 하고 발화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絶對時制로 現在(E *simul* S), 過去(E *before* S), 未來(E *after* S)時制를 설명함으로써 이들 시제의 基準時點이 發話時點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7] Bybee (1985: 169), 高永根 (1986) 참조. 한편 張京姬 (1985: 8-14)는 敍法과 樣態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話者의 精神的 態度'를 나타내는 것을 '樣態'라고 부르고, 종결어미에 의한 것은 '敍法'이라고 부른다.

2. 2. 현대국어 마침법의 時相體系

현대국어 마침법의 時相對立은 先語末語尾들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그 대립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先語末語尾들 사이의 결합관계 및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현대국어에서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데 관여적인 형태소들의 배열을 나타내어 본 것이다.

(1) 어간 - { 었 / ϕ_1 } - 겠 - { 더 / ϕ_2~느 } - 어말어미

(가) (나) (다)

현대국어 마침법의 시제에 대하여는 '過去 : 現在 : 未來(-었-:-느-:-겠-)'의 對立으로 보는 견해와 '過去:非過去(-었-:ϕ_1 또는 -느-)'의 對立으로 보는 견해가 맞서 왔다.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本稿에서는 後者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겠-}은 '推測 또는 意志'를 나타내는 敍法的 要素이며, '未來'를 뜻하게 되는 것은 二次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예에 의해 뒷받침된다.

(2) a. 개들은 지금 한창 신나게 놀고 있겠구나.
b. 젊으셨을 때는 무척 예쁘셨겠습니다.
(3) a. 철수는 내년 3월에 졸업한다.
b. 그 일은 3년 후에나 끝납니다.
(4) a. ?철수는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유학가겠다.
b. ?다음달에 월드컵 축구가 열리겠다.

(2a)와 (2b)는 각각 현재와 과거의 상황에 {-겠-}이 쓰이고 있는 예로서, '未來'가 {-겠-}의 본질적 의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은 미래의 상황에 {-겠-}이 쓰이지 않은 예이며, (4)는 미래의 상황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확정적 상황이면 {-겠-}의 쓰임이 오히려 어색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겠-}의 본질적 의미가 '未來'가 아니라 '推測, 意志'임을 입증하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李翊燮 · 任洪彬 (1983: 177)은 '국어에는 未來時制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한 바 있다.[8]

[8] 이밖에 Chong, Hi-Ja (1990) 참조. 한편, 남기심 · 고영근 (1985: 307)은 {-겠-}을 未來時制로 보고 아울러 樣態的 意味도 표시한다고 보았다. 미래의 확정적 상황의 경우도 여러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릴 때에는 {-겠-}이 쓰이기도 한다(다음 예 참조). 그러나 이 경우는 문체상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① a. 오는 □월 □일 제 □차 정기총회가 열리겠사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b. 내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過去:非過去'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도 '{-었-}:ϕ_1'의 대립으로 보는 입장과 '{-었-}:{-느-}'의 대립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느-}도 역시 {-었-}과 통합하여 나타날 수 있고, 형용사의 경우 非過去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국어의 시제를 {-었-}의 유무에 의한 '過去:非過去'의 對立으로 보기로 한다.[9] {-느-}는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열위치상 {-더-}와 대립하는 형태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대국어 마침법에서 (1)의 (가)는 時制의 對立을 나타내고, (나)와 (다)는 敍法의 對立을 나타내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다.[10]

그러나 이러한 대립관계의 설정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체적 시상체계의 설정은 각 형태소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本稿의 논의를 위하여는 국어의 시제가 {-었-}의 유무에 의한 '過去:非過去'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예를 보자.

(5) a. 철수는 지금 부산에서 산다.
b. 철수는 작년에 부산에서 살았다.
c. 철수는 내일 부산에 출장간다.
(6) a. 영희는 참 예쁘다.
b. 영희는 어렸을 때 참 예뻤다.

(5), (6)에서 (5a)와 (6a)의 경우 {-었-}이 없고 (5b)와 (6b)의 경우는 있는데, 각각 발화시를 기준으로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5a)의 '-ㄴ다'의 'ㄴ'을 {-느-}의 한 異形態로 보고, 이것이 {-었-}과 대립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6a)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의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없다. 이때에도 형용사의 경우 {-느-}의 한 異形態로서 ϕ를 설정하여 {-었-}과 {-느-}의 대립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었-}은 {-느-}와 그 출현 위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었-}의 출현 여부가 시제대립을 이루는 관건이라고 할

[9] 先語末 {-느-}는 출현양상이 다양하여서 형태소 정립 및 대립관계의 설정에서부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어의 시제를 {-었-}의 유무에 의한 '과거:비과거'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로는 김차균 (1980: 65, 83), 柳東碩 (1981: 211), 정문수 (1983: 28) 참조.

[10] (다) 위치에서의 대립의 성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敍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수 있겠다.[11] 한편 (5c)에는 {-었-}이 없는데, 부사 '내일'이 말해주듯 미래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었-}의 不在, 즉 ϕ_1은 미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라기보다는 '비과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옳다.[12] 이상 (5~6)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국어 마침법의 시제가 {-었-}의 유무에 따라 발화시를 기준으로 '過去:非過去'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어에서 現在와 未來의 개념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단지 形態上으로, 즉 先語末語尾에 의해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문법적 대립을 언급할 때에는 '非過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意味를 언급할 때에는 現在, 未來의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3. 연구의 방법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의 意味를 밝히고자 할 때, 그 형태소가 나타나는 자료들의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문법형태소의 의미는 그 형태소가 속해 있는 文法範疇 안에서 다른 요소와의 對立關係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Lyons 1977: 235, 허웅 1981: 259). 이러한 대립관계를 중시하지 않은 채 그 형태소가 쓰이는 상황에 집착한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7) a. 언제부터 걸어서 출근하셨습니까 ?
b. 그 주전자 좀 집어 주실 수 있습니까 ?
c. 어느 누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11] {-었-}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相範疇와의 관련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즉, {-었-}을 '完了' 또는 '結果狀態의 持續'으로 보는 견해가 그 예이다. {-었-}이 쓰인 문장에서 그러한 의미가 느껴지는 예도 많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있으며, 이는 대체로 선행하는 낱말의 意味特性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本稿에서는 {-었-}을 過去時制 形態素로 보고 앞에 언급한 相的 意味는 文脈 속에서 생겨나는 二次的인 意味로 간주하기로 한다. 韓東完 (1984: 53-57), 김차균 (1985: 36), Chong, Hi-Ja (1990: 398-399) 참조.

[12] 任洪彬 (1982: 436, 각주 5)은 이러한 'ϕ' (영 형태: zero expression)는 '영형태의 일반적 성격과는 다르다'고 하고 '영형태란 어떤 형태소가 있고 그에 대한 변이형태로서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Bybee (1985: 27)는 '굴곡표현(inflectional expression)에서 어떤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범주의 결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50개 언어의 자료를 통하여 시제, 상, 서법 등의 범주에서 흔히 ϕ로 나타나는 대립항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책 p. 54). 이 통계에 따르면 ϕ에 의해 현재시제가 나타내어지는 언어는 60%에 달한다.

(7a)는 聽者에게 질문하는 것이며, (7b)는 부탁하는 것이고, (7c)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문장이다. 의문법 어미 {-까}가 질문할 때에도, 부탁할 때에도, 때로는 강조하여 서술할 때에도 쓰인다고 하여, 이들을 {-까}의 의미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질문, 부탁, 서술'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제시한다는 것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와 반대로 의문법 어미 {-까}와 다른 종결어미와의 대립관계를 밝혀 그 文法的 意味, 즉 機能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문법 어미 {-까}가 어떻게 하여 이러한 상황들에 쓰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하겠다.

{-더-}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먼저 우리는 {-더-}의 의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게 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다양성이 示唆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가 回想하여 말할 때, 혹은 '體驗事實을 알릴 경우에만', 혹은 '責任性을 갖지 않고... 알리려는 의도만으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필연적으로 {-더-}의 의미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여 그 동안의 논의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더-}가 쓰이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文法體系 안에서의 對立關係를 바탕으로 파악한 {-더-}의 의미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더-}의 용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의 의미

2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대국어 마침법에 나타나는 {-더-}의 의미를 규명해 보자. 먼저 對立項과의 관계에 의하여 {-더-}의 의미를 析出하고, {-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知覺, 經驗'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어서 {-더-}의 의미를 정의하고 아울러 本稿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3. 1. {-더-}와 기준시점

앞의 (1)에서 {-더-}는 {ϕ_2~-느-}와 대립함을 살펴 보았다. 이제 다음 예를 통하여 그 대립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8) a. 철수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b.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c.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9) a. 신문에 보니까 다음달부터 버스요금이 오르더라.
b. 개들은 금방 싸우겠더라.
(10) a.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b.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c. 기차가 한 시간 후에 출발하더라.

(8a)와 (8b)는 각각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언뜻 보아 {-더-}가 과거의 상황을 지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상황은 (8c)에서 볼 수 있듯이 {-었-}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그렇다면, (8b)와 (8c)에서의 {-더-}와 {-었-}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아가 (8a)와 (8b)에서 볼 수 있는 {ϕ_2~-느-}와 {-더-}의 對立關係는 그 本質이 무엇일까?

그 해답은 (9)에서 찾아진다. (9a)에서 '버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즉, {-더-}는 상황의 시점을 과거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9a)는 발화시점 이전에 앞으로 '버스요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뜻하며,[13]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의 미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9a)의 미래가 발화시점 기준의 미래가 아니라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b)는 발화시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의 推定的 事實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더-}에 발화시 이전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8b)는 {-더-}에 의해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고 그 시점에서의 현재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2.2) 국어의 시제대립을 '過去:非過去'의 대립으로 파악한 바 있거니와, 상황을 알게 된 시점 기준의 미래 (9a)와 현재 (8b)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8b)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 기준의 현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화시 기준의 과거가 되는 것이며, 반면 (8c)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라는 점에서 (8b)와 다른 것이다. 나아가 (8a)와 (8b)의 대립관계도 단순히 발화시 기준의 현재와 과거의 그것이 아니며, (8a)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현재이고, (8b)는 발화시 이전의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8a)와 (8b)에서 볼 수 있는 {ϕ_2~-느-}와 {-더-}의 대립의 본질은 基準時點의 對立이지 상황의 時間的 位置의 對立이 아니다.

{-더-}가 발화시점 이전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10)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10a)는 話

[13] '알았음, 봄'을 뜻한다기 보다는 '알았음, 봄'을 前提한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3.2 참조.

者가 발화시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이며, (10b)는 철수가 이미 그 이전에 가서 보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학교에 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10a)는 화자가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이며, (10b)는 그 시점 기준의 과거이다. (10b)가 화자가 '철수가 학교에 간' 것을 직접 보았을 때에는 쓰일 수 없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간 것을 직접 보았다면, 본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가 되어 {-었-}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 {-더-}의 의미로 '過去未完'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더-}의 앞에 {-었-}이 없을 때 '알게 된 시점에서의 현재'가 되는 데서 생겨나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즉, '未完'은 {-더-}의 의미가 아니라 {-었-}의 不在가 갖는 문맥적 의미인 것이다. (10a~b)를 통하여 {-더-}의 앞에 {-었-}이 출현함으로써, 다시 현재와 과거의 대립이 생겨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의 (9)의 예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었-}이 없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의 앞에서도, {-었-}의 不在, 즉 ϕ_1은 '非過去'라고 하는 것이 옳다. 또한 우리는 ϕ_1을 '非過去'라고 함으로써, (10c)의 중의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0c)는 첫째로 (예를 들어 버스가 출발하고) 한 시간 후에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화자가 목격했다는 뜻(즉, 알게 된 시점에서의 현재)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둘째로 열차 시각표를 보니까 기차가 한 시간 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의미(즉, 알게 된 시점에서의 미래)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重義的이라 할 수 있는데,[14] 이러한 重義性은 '非過去'가 상황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더-} 앞에서의 時制對立은 {-었-}의 유무에 의한 '過去:非過去'의 對立으로서, {ϕ_2~-느-} 앞에서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시제대립과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 (2.1)에서 '기준시점'은 상황의 시간을 위치시키는 기준이 되는 시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제시하는) 화자의 위치 (viewpoint)와도 관련된다고 한 바 있거니와, {-더-}가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의 기준시점은 後者의 의미에 가깝다. 즉 {-더-}에 의해 상황을 보는 (제시하는) 화자의 위치가 (발화시점으로부터) 상황을 알게 된 시점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더}의

[14] 둘째의 의미는 시간부사 '한 시간 후'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능을 '기준시점의 이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5]

3. 2. {-더-}와 지각, 경험

지금까지 우리는 {-더-}와 {ϕ_2~-느-}의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가 '발화시 이전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基準時點이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의 앞에서 다시 {-었-}의 유무에 의해 '過去:非過去'의 시제대립이 이루어짐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더-}의 의미와 관련된 '알게 됨 (경험, 지각)'의 특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더-}가 기준시점을 이동시키되 반드시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만 制限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자.

(11)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치더라.

(11)은 화자가 TV나 영화를 통하여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고 이야기한 경우가 아니면 非文法的이다. (11)은 {-더-}가 가리키는 시점에서 '非過去'로서, 문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시점과 같은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당시의 일을 직접 겪었거나 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기준시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반면에 TV 또는 영화 등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본 경우에는, 영상매체에 의해 마치 눈 앞에 전개되는 상황처럼 보게 되므로, 바로 이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어 (11)이 성립한다.). 이는 서정수 (1977: 104-107)에서 '몸소살핌제약'이라고 불렸던 현상인데, {-더-}에 의해 새롭게 기준시점이 되는 시점이 任意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상황을 본 또는 알게 된 시점에만 제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알게 됨, 또는 봄'의 특질은 {-더-}의 의미와 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문수 (1983)는 {-더-}의 본질적 의미는 '경험 (들음, 느낌, 알게 됨, 봄)'이라고 하였으며, 장경희 (1983, 1985)는 '화자의 過去 知覺行爲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더-}의 이러한 특질을 {-더-}의 본질적 의미로 보지 않는다. 모든 발화는 표면상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화자의 경험, 지각, 인식, 추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12)는 정문수 1983: 30의 예 (90))

[15] 이러한 의미의 기준시점은 '視點'이라고 불러 구별할 수도 있다. 한편 韓在永 (1986: 262-271)은 '時點의 문제'와 '視點의 문제'를 구분하고 {-더-}를 視點形態素로 보았으나, {-더-}에 있어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위치가 현재'라고 한 점에서 本稿와 큰 차이가 있다.

(12) a.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더라.
b.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13) a. 내년에 쌀시장이 개방되더라.
b. *내년에 쌀시장이 개방되었다.

(12)는 앞의 (11)과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문수 (1983: 30)는 (12a)에서 {-더-}는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북선 건조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경험했다)'는 진술이 되어 '참'이 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되지만, (12b)에서 {-었-}은 말하는 이의 경험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거북선 건조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과거의 일이었다'는 진술이 되므로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더-}는 경험을 가리키며, {-었-}은 경험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12a)와 (12b)에서의 문법성의 차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적어도 (12a)와 (12b)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12a)가 어떤 과정에 의해 '건조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 된 것인지 검토했어야 했다. {-더-}가 과거의 경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3)에서 드러난다. (13a)와 (13b)의 문법성의 차이는 '경험, 알게 됨, 봄...'으로 설명할 수 없다. (13a, b) 모두 발화시 이전에 '내년에 쌀시장이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다. '경험의 뜻을 갖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었-}이 쓰인 (13b)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더-}와 {-었-}의 차이가 '경험, 봄, 알게 됨...'만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나아가 {-더-}의 본질적 의미는 '상황을 알게 된 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옮기는' 데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13a)는 알게 된 시점에서의 非過去, 즉 未來이기 때문에 '내년에' 라는 미래표현이 문제되지 않지만, (13b)의 {-었-}은 발화시 기준의 과거 이기 때문에 미래표현과의 共起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험, 알게 됨...'은 {-더-}만의 특징도 아니며, 또 그것만으로 {-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張京姬 (1985: 63-65)는 {-더-}가 결합된 문장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話者의 過去 知覺行爲'를 表現하고, {-더-}가 결합되지 않은 문장은 '사태 자체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張京姬 1985: 64의 예).

(14) a. 영이가 순이 동생이더라.
b. 영이가 순이 동생이야.

(14a)는 '영희가 순이의 동생임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14b)는 '말하고 있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5) a. 얘, 여기 좀 봐! 영이가 순이 동생이야. 우린 바보같이 그런 것 도 모르고 있었어.
b. 나는 지금 몹시 춥다.
(16)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냐 ?

(15a)에서 '영이가 순이 동생이야' 하는 부분에 '알게 되었음'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15b)는 {-더-}가 없지만 분명히 發話時點(現在)에서의 知覺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4a)와 (14b)의 차이가 지각행위를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가 결합되지 않은 문장도 상황에 따라 '知覺行爲'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14a)에서 '지각행위'의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는 있되, '지각행위'의 의미가 {-더-}와 {ϕ_2~-느-}의 대립관계를 특징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를 {-더-}의 核心意味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장경희 (1983: 312)는 {-더-}가 의문문에서는 聽者의 過去 知覺行爲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16)이 과연 청자의 지각행위를 묻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16)은 청자가 도서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前提하고, 사태 자체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서관에 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16)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더-}에 의한 기준시점의 이동이 '알게 된 시점'에 제한되는 것과 '지각, 또는 경험'의 의미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위의 (16)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편의상 (16)을 다시 옮긴다.).

(16)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냐 ?
(17) a. 영희가 그 날 노래를 부르더라.
b. 영희가 그 날 노래를 안 부르더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은 청자가 도서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前提하고서 묻고 있는 질문이다. 즉, 의문문에서의 {-더-}는 {-더-}에 선행하는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청자의 경험, 또는 지각을 話者가 前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문행위'는 청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전제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를 사용한 질문은 청자가 단순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聽者의 知覺 또는 經驗 (즉, 직접 보았음)을 前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17a, b)에서도 {-더-}는 화자가 선행하는 명제가 나타

내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전제하고 있다.[16] 따라서 '그 날'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17a, b)와 같이 발화하게 되면 이는 일종의 '前提의 失敗'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가 '알게 됨(경험 또는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는 {-더-}의 본질적 의미가 아니며, 기준시점을 '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으로 옮기기 위하여 充足되어야 할 前提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더-}가 쓰일 때 '지각'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은 '지각'이 전제되고, 아울러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文脈的 의미이다.

3. 3.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의 의미

이제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의 의미를 정의하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더-}에 의해 기준시점으로 되는 시점은 '발화시 이전의 어떤 상황을 본 또는 알게 된 시점'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시점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여러 用語로 표현되어 왔다.[17] 다음 예를 보자.

(18) a. 다 큰 처녀들이 한길에서 싸우더라.
b. 오는 7월에 혜성 Shoemaker-Levy가 목성과 충돌하더라.
c. 철수는 영희의 동생이더라.
d. 철수가 미남이기는 하지만 신랑감으로는 문제가 있더라.
e. 나는 그 장면이 정말 슬프더라.

(18a)는 싸우는 장면을 화자가 직접 보았음을 前提하고 있으며, (18b, c)는 각각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혹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였음 또는 알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18d)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18e)는 슬픈 감정을 체험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더-}와 관련되는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정문수 (1983: 24)는 '들음, 느낌, 알게 됨, 봄'을 하나로 묶어 '경험'이라고 귀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편 張京姬 (1985:69-70)는 '知覺'을 제시하면서, 가장 넓은 의미의 知覺의 의미는 '모든 감각작용과 內省을 통한 앎'을 뜻한다고 하였다. '內省'은 '깊이 자기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 또는 '자기관찰'을 뜻하는데(금성판 『국어대사전』

[16] 이것이 의미론적인 전제(semantic presupposition)인지는 확실치 않다.

[17] '경험한 시점'으로 보는 견해로는 최현배 (1937=1983: 445), 高永根 (1965=1989: 190), 李翊燮·任洪彬 (1983: 188) 등이 있으며, 李翊燮 (1978: 371)은 '확인한 때,' 서정수 (1977: 121)는 '몸소살핌시간,' 김차균 (1980: 89-90)은 '말하는 이의 주관 속에 존재하는 과거 어느 때,' 柳東碩 (1981: 210)은 '인지시,' 任洪彬 (1982: 450-451)은 '관찰시,' 장경희 (1983: 296)는 '지각시'라고 불렀다.

(1991)),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內省을 통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잠정적으로 '인식'이라고 하고 {-더-}에 의해 기준시점이 되는 시점을 '先行하는 命題가 나타내는 狀況을 認識한 時點' 즉 '認識時'라고 부르기로 한다. '認識'이란 '알게 됨'을 뜻하는데, {-더-}의 의미와 관련하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15e)에서와 같은 감정의 體驗이나 느낌을 '인식'이라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는 '인식(지각) 또는 감정의 체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18]

위의 '인식시'의 정의에 '발화시 이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잉여적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발화시점과 동시일 수도 있고,[19] 발화시 이전일 수도 있다. 前者의 경우는 기준시점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점 이동의 '-더-'와 관련되는 인식시는 必然的으로 발화시 이전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더-}의 의미(기능)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9) 현대국어 마침법에서의 {-더-}의 의미
현대국어의 마침법에서 쓰이는 {-더-}는 선행하는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게 한다.[20]

여기에서 {-더-}가 그 앞에 선행하는 명제가 뜻하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시점이 되게 하기는 하되, 그 狀況의 時間的 位置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에 선행하는 명제는 {-더-}가 지시하는 인식시를 기준으로 {-었-}의 출현여부에 의해 그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더-}가 쓰이는 문장의 過

[18] 익명의 심사자는 이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1) (직접) 목격·경험과 2) 지식의 습득을 엄격히 구분하여 {-더-}는 2)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은 '認識'을 '知覺, 記憶, 想像, 構想, 判斷, 推理를 포함한 廣義의 知的作用'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와 관련되는 心的領域은 이러한 廣義의 認識이나 '지식의 습득'보다 더 넓은 듯하다. 현재로서는 '體驗'(특정한 인격이 직접 경험한 심적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19]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화 직전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柳東碩 (1981: 221), 任洪彬 (1982: 450) 참조.

[20] 남기심·고영근 (1985: 317)에서도, '직설법({-느-})과 회상법({-더-})은 기준시점이 발화시냐 경험시냐의 차이만 인식되고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객관적이라 함은 공통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기준시점의 이동'을 중시하고 있다. 사실상 {-더-}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기준시점의 이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준시점의 이동' 이외의 다른 의미(회상, 경험, 객관적 전달... 등)를 {-더-}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本稿와 차이가 있다.

去性은 {-더-}에 의해 그 상황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기준시점이 이동됨으로써 派生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즉 {-더-}는 기준시점의 이동만을 의미할 뿐이며, 어떤 상황의 시간적 위치가 과거임을 뜻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더-}가 국어 시상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 (2.1)에서 제시한 時制(tense)의 정의에 따를 때, {-더-}를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할 수는 없다.[21]

3. 4. 기준시점의 이동에 대한 반대 견해

任洪彬 (1982: 437-8)은 {-더-}를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否定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任洪彬 1982: 437의 예 (2)-(3), 밑줄은 필자가 한 것임).

(20) a. 지금 밖에는 눈이 오더라.
b. 어제 그 집에서 사람이 왔더라.
c. 내일은 눈이 내리겠더라.
(21) a. 조금 전에 밖에는 눈이 오더라.
b. 어제 벌써 그 사람은 우리를 떠나겠더라.
c. 내일 그 사람이 떠나더라.
d. ?*어제 밖에는 눈이 왔더라.

(20)의 예들은 {-더-}를 基準時點의 移動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지만, (21)의 예들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먼저 (21a)의 경우 {-더-}를 기준시로 하여 '*조금 전에 밖에는 눈이 온다'고 할 때 '조금 전'이 결코 현재시제와는 共起할 수 있는 성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히 지적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1a)가 '*조금 전에 눈이 오-'에 '-더라'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의 결합은 기준시점의 이동을 뜻하므로 어떤 명제에 {-더-}가 결합될 때 發話時 基準의 時稱語들은 再解釋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21a)는 '지금 눈이 오-'에 '-더라'가 결합한 것이며, 이때, {-더-}의 결합에 의해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상황이 되므로, '지금'은 '조금 전에'로 바뀌어진다고 할 수

[21] {-더-}가 과거시제가 아님은 일찍이 高永根 (1965=1989: 191)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는 {-더-}가 '시제와 관계가 있다는 어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경험시점이 과거라는 데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용법'이라 하고, '구조상으로 볼 때 직설법 '-느-'와 같이 나타날 수 없어서, 같은 序列에 속하는 형태소이며, 이들 두 요소 위에 '-었-', '-겠-'이 붙는 것으로 보아 범주가 다른 문법적인 요소(서법형태소)'라고 하였다.

있겠다.[22] (20a)의 경우 '지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화자가 발화 순간에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이 그 時區間 안에 '조금 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3]

또한 그는 (21d)가 '{-더-}의 앞에 비록 {-었-}이 있다고 하더라도 奇妙하다'고 하고, 이 奇妙性은 '밖에는'이라는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서 기준시점의 이동만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1d)의 奇妙性이 '밖에는'이라는 요소에 기인한다는 그의 지적이 타당함은 '밖에는'을 '남부지방에는'으로 바꾼 다음의 (22)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아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2) 어제 남부지방에는 눈이 왔더라.

그렇다면 基準時點의 移動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는 {-더-}와 관련되는 문법적 및 화용적 제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本稿 5장 참조). 다음으로, (21b)에서 '어제'와 {-겠-}이 호응하지 않는 점, (21c)에서처럼 미래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은 국어의 시제를 '과거:비과거'의 대립으로 보는 本稿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2.2 참조).

한편 韓東完 (1984: 25-26)은 {-더-}는 '認識時의 先時性 (認識時>基準時)'[24]을 나타내는 '시제요소'라고 하고, {-더-}에 있어서 기준시가 이동되는 것은 {-더-}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더-}의 본질에 의해 派生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이 발화시에 선시적임을 지시하고, {-더-}에 의한 인식시는 하나의 기준시가 되어 그 앞에 오는 상황시의 위치를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基準時點의 移動이란 '認識時의 先時性'에 의해 산출되는 시제현상일 뿐이며, 그것이 {-더-}의 본질과 유관하기는 하지만 '{-더-}≡기준시점의 이동'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認識時의 先時性'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基準時點의 移動'이 그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그는 '認

[22]마치 영어의 간접화법에서의 지시적(deictic) 요소들의 변화와 유사한 과정이다. 李翊燮·任洪彬 (1983: 189)은 '-더-'가 다른 때에 경험한 상황을 한 層位를 두면서 옮겨와서 보고하듯이 하는 말투에 쓰인다고 하면서, '일종의 간접화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다'고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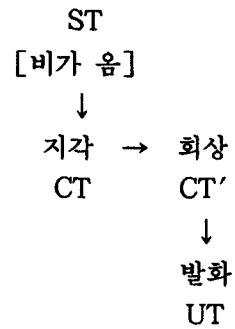
[23]'지금'의 의미에 관해서는 李基用 (1976) 참조.

[24]그는 '>' 기호를 'a>b가 시간 관계를 나타낼 경우, a가 b에 先時的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김영희 (1981)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시제논리(Tense Logic)에서는 t_1이 t_2보다 앞서는 시간일 때 '$t_1 < t_2$'로 나타낸다. 柳東碩 (1981)은 後者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識時'를 '화자에 의해 지시되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화자가 인식한 시간적 위치'(p.4의 각주 6, p.11)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 예는 韓東完 (1984: 19-24)의 예 (6) 및 그림 (7), (7′), (7″)를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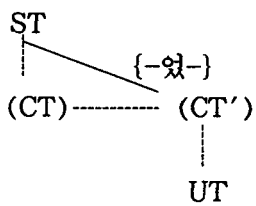
(23) a. 간 밤에 비가 왔다.
b. 간 밤에 비가 오더라.

(24)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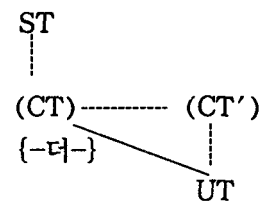


※ ST : 狀況時
CT : 認識時
UT : 發話時

b.



c.



화자가 밤에 비가 온 것을 知覺하고 그 知覺內容을 현재의 발화시점에서 回想하여 말할 경우 (23a, b)가 모두 가능한데, 이를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 (24a)이다. 그는 (24a)의 경우 {-었-}, {-더-}에 의해 지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지시내용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각각 (24b)와 (24c)로 나타내었다. 그에 의하면, {-었-}은 '상황시>기준시(狀況時의 先時性)'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의 인식시는 발화시와 같은 시점이 된다. 즉, {-었-}은 '발화시와 동일한 인식시점에서 과거의 지각내용을 반추·회상함에 의해 (지시되는) 상황시를 그 인식시(즉, CT′) 이전에 위치시키는 것'이고, 반면 {-더-}는 '과거의 지각내용(즉, CT)을[25] 직접지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p. 23).

그의 설명은 결국 {-었-}은 발화시점에서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基準時(發話時) 이전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인식시=발화시'가 되고, {-더-}는 상황을 지각(인식)한 시점 (CT)에서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나타

[25] 여기서 '過去의 知覺內容'을 CT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CT는 상황을 認識 (知覺)한 時點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내기 때문에 '인식시>발화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基準時點의 移動'을 가리킨다. 즉,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基準時點를 認識時로 移動시킨다'는 것은 '인식시의 선시성'에서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며 同値인 것이다. 이는 위의 그림 (24c)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CT가 인식시가 되어 '인식시의 선시성'이 성립하는 것은 'CT'을 유보한 채 CT를 직접지시함으로써', 즉 기준시점을 이동시킴으로써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오히려 {-더-}에 의해 '기준시점이 이동'됨으로써 인식시가 선시적임이 부각된다고 본다. 本稿에서의 '인식시'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24)의 CT)'이기 때문이다. 韓東完 (1984)에서와 같이 '인식시'를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인식한 시점'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발화를 할 때, 언급되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항상, {-더-}의 경우까지도, 발화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더-}가 발화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내용을 回想함으로써만 과거 상황의 지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이 '回想'이라는 인식작용 속에는 그 상황의 시간적 위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더-}는 발화시점에서 과거의 인식내용을 회상하고 동시에 상황을 인식한 시점을 확인하여 그 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더-}가 결합한 문장에서 시칭어가 발화시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현상(조금전에 눈이 오더라)은 상황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발화시점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인식한 시점은 항상 발화시와 같으며, 이 시점은 時相對立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26]

그렇다면, 앞에서 (3.3)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 즉 認識時는 발화시와 동시일 수도 있고, 또는 발화시 이전일 수도 있다. {-었-}이 결합한 문장은 흔적을 통한 추리인 경우 인식시가 발화시와 동시이며, 과거의 인식내용을 회상한 경우는 발화시 이전인 것이다. 따라서 인식시가 발화시에 선시적이라는 것은 {-더-}만의 특성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인식시가 발화시 이전일 때에 기준시점의 이동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아울러 基準時點이 認識時로 移動됨으로써 認識時의 先時

[26] 韓東完 (1991: 15)에서는 인식시의 개념을 '상황에 대해 화자가 인식한 시간적 위치'로 수정 제시하고 있으나, p. 22 그림 (1), p. 33 "-었-'의 기준시는… 현재 인식시이지만'의 설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논지에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性이 浮刻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시가 발화시 이전이라 하여 항상 기준시점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었-}에 의한 경우가 그러한데, 이 때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인식시가 선시적임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화시에서의 인식적 개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4. {-더-}와 문맥적, 함축적 의미들[27]

지금까지 마침법에서의 {-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고, 아울러 {-더-}의 기본적 의미를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本稿의 입장을 밝혔다. 이제 그 동안 제시되어 왔던 의미들을 검토하여, 그들이 {-더-}의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文脈的 또는 含蓄的 意味임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또한 앞에서 규정한 {-더-}의 의미, 즉 '선행하는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옮긴다'는 것에 의해 이러한 여러 의미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28]

4. 1. {-더-}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

먼저 '回想'은 일찍이 최현배 (1937)에서 {-더-}를 '도로생각 때매김(回想時制)'으로 풀이한 이래로, 高永根 (1965), 허웅 (1983), 김차균 (1980), 김영희 (1981) 등을 비롯한 수많은 논의에서 받아들여졌던 개념이다. {-더-}가 '回想'을 뜻한다는 주장은, 柳東碩 (1981: 206)의 지적대로, '대체로 토박이 화자들이 가질 수 있는 直觀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더-}가 통합된 문장에서 과거의 경험사실을 더 생생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회상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적 등에 의한 추론이 아니라면 모든 과거상황의 표현은, 그것이 {-었-}에 의한 것이든, {-더-}에 의한 것이든 과거에 지각한 내용을 회상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

[27]本稿에서는 {-더-}에 의해 기준시점을 이동시킴으로써 부각되는 의미를 '문맥적 의미(contextual meaning)'라고 부르고, 이 과정에서 함축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implicature)'라고 부른다. 함축적 의미는 취소가 가능하며, 진리조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맥적 의미와 다르다(沈在箕 · 李基用 · 李廷玟 1984: 180) 참조.

[28]이창덕 (1988: 217)도 {-더-}는 '순전히 화자가 화자의식 속에 있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의미들과는 필연적 관련이 없다고 함으로써, 本稿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단, 세부적인 내용 및 그가 마침법과 매김법, 그리고 이음법의 {-더-}까지 모두 동일하게 설명하는 점에 있어서는 本稿와 다르다.

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회상작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회상은 {-더-}만의 특성이 아니다. {-더-}의 특성은 과거의 상황을 지각한, 즉 인식한 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옮겨서 표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報告'의 의미는 Sohn Ho-min (1975), 서정수 (1977)에서 제시되었는데, 특히 서정수 (1977, 1990)는 {-더-}가 '報告'(reportive)라는 일반적 개념과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報告'가 {-더-}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정수 (1990)에 제시된 근거들은 {-더-}가 '回想'을 나타낸다는 주장에 대해서와 동일한 논리로 반박될 수 있다. 즉, {-더-}가 반드시 회상의 상황에서만 쓰인다고 하여 {-더-}를 '회상'이라 부를 수 없으며, '회상의 변별자질을 부여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資質의 有無이지 그 強度의 差異는 아닌 것'(서정수 1990: 274)처럼, {-더-}가 체험 사실을 알릴 경우에만 쓰이고, 그밖의 일반 서술법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하여 '보고'라 부를 수는 없으며, 또한 {-더-}가 들어간 문장이 여느 문장보다 보고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하여 {-더-}를 '보고'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고'는 {-더-}만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고, {-더-}가 들어간 문장이 여느 문장보다 보고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더-}를 '회상'이라고 할 때, '{-더-}에 일종의 選別的인 回想作用을 가정하되, 그것도 자신에 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점이 불합리한 만큼 (서정수 1977: 118), {-더-}를 '보고'라고 할 때에도 選別的인 報告를 가정하되, 자신에 관한 것은 보고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29]

'無責任性'은 김영희 (1981)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그는 '회상행위란 명제에 대하여 '責任性'이 없는 행위'라고 하고, 회상행위의 필수조건으로서 '무책임성'을 제시하였다. 그의 '무책임성'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belief)과 관련되는 '무책임성'(즉, 화자가 명제에 대해서 갖는 태도)과 언급되고 있는 사태의 발생원인에 대한 '무책임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더-}와 관련이 있으나 필연적 의미는 아님은 이

[29]또한 서정수 (1990: 283-286)는 공식적 보고문에서 {-더-}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에 '보고기능'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여러 비판들(김차균 1980: 78-81, 柳東碩 1981: 208-209 등)에 대해, 오히려 이 점이 {-더-}에 '보고기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더-}가 지닌 보고적 의미기능이 '보고하다' 등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중복 현상을 빚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법형태소는 의무적으로(obligatorily)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 '어제 눈이 *오다/*온다/왔다/*오겠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상황에는 반드시 과거형태소 {-었-}이 있어야 한다), 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미 지적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다.[30]

'客觀的 傳達'은 高永根 (1965), 柳東碩 (1981)에서 제시된 개념인데, 역시 필연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 '客觀的 傳達' 만으로 {-더-}의 모든 쓰임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本稿의 예문 (11)과 같은 경우), 또한 {-더-}가 쓰였을 때, 오히려 주관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25) a. 그 날은 추웠다.
b. 그 날은 춥더라.
(26)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더라.

(25a)는 '그 날의 날씨가 추웠다'는 것을 뜻하며, (25b)는 '화자 자신이 춥게 느꼈다'는 의미가 강하다. {-더-}가 쓰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임이 두드러지는 것이다.[31] 또한 (26)은 화자의 推定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과거 시점에서의 推定的 事實'을 나타내는 표현이 '-겠더-'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더-}가 결합된 표현이 그렇지 않은 표현보다 더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된다고 할 수는 없다.[32]

'意識의 斷絶'은 任洪彬 (1982)에서 제시된 개념인데, 그는 {-더-}가 쓰인 문장은 觀察時와 發話時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 전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식의 단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적어도 의식의 단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任洪彬 (1982: 472)에 따라 '의식의 단절'을 '關心의 斷絶..., 關心의 不連續'으로 이해할 때, 과연 의식의 단절이 {-더-}의 필연적인 의미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화자 자신이 한 일이라도 곧 관심을 끊게 된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더-}의 쓰임은 제약되며, 어느 순간에 느낀 감정이 오랜 기간 동안, 혹은 발화시까지도 지속될 수 있지만 {-더-}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33]

[30]자세한 것은 장경희 (1983: 305-306) 참조.

[31]이기동 (1989: 190-192)은 (25b)는 '화자의 직접 지각, 경험'을 나타내는 '사적(private)인 발화'이며, (25a)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공적(public)인 발화'라고 하고, {-더-}는 반드시 화자가 관련되는 '주관적 형태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hin, Hyon-Sook (1990)은 이와 관련하여 {-더-}를 'subjectification marker'라고 부르고 있다.

[32]그 동안의 {-더-}의 논의에서 '객관적 전달, 객관적 태도' 등의 개념은 종종 '객관화'와 관련되어 언급되어 왔다(柳東碩 1981: 218, 서정수 1990: 291-293). 그러나, 문장의 주어가 보고자와 동일 인물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분리된 자로 인정되어 관찰(고찰, 인식 또는 발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 즉 '분리 가능성' (서정수 1977: 107-111), 또는 '객관화(=대상화)'와 '객관성을 띤', 혹은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서술(보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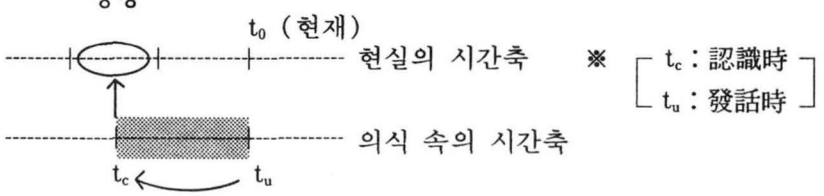
[33]보다 자세한 것은 張京姬 (1985: 62) 참조.

{-더-}가 쓰인 문장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 관심거리' 등도 {-더-}의 기본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申鉉淑 (1980)에서 제시된 개념들인데, 그녀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들은 상황에 따라 부각되는 의미이며, {-더-}가 쓰인 문장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기 때문이다.[34]

4. 2. 문맥적 · 함축적 의미의 생성 과정

이상 그 동안의 논의에서 {-더-}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더-}의 필연적 의미, 즉 기본의미가 아님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의 화맥 속에서 많은 토박이 화자들에게 {-더-}의 의미는 이들 중 어느 하나(또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 동안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기준시점의 이동'을 {-더-}의 한 특성으로 보아 왔으면서도, {-더-}의 기본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문법형태소의 기본의미와 그 문법형태소가 구체적인 話脈 속에서 갖는 문맥적 · 함축적 의미들을 구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本稿에서 규정한 {-더-}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상의 여러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다음 그림은 本稿에서 정의한 기준시점의 이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7) 상황



(기준시점의 이동)

기준시점의 이동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 ㈎ 發話時에서의 認識의 留保, ㈏ 發話時와 認識時 사이의 時域을 건너뜀, ㈐ 認識時

[34] 한편, 柳東碩 (1981: 217-220)은 {-더-}의 의미자질로서 '무의도(non-volition)'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無意圖'는 {-더-}의 앞에 결합되는 문장들의 한 특징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더-}가 '無意圖'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화자의 意圖에 의한 행위에 {-더-}가 결합할 수 없는 현상은 {-더-}의 기본의미와 관련하여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겠다(本稿 5장 참조). 이밖에 '非現場性'(柳東碩 1981)은 서정수 (1977, 1990)의 '장면제약'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인데, 이는 곧 '기준시점의 이동'을 뜻한다. 기준시점을 인식시로 이동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화현장에서 벗어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에서의 狀況에 대한 言及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한 측면이 부각될 때 {-더-}는 다음과 같은 文脈的 意味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기준시점의 이동과 관련하여 (가)의 측면이 부각될 때, 客觀的 傳達, 報告 등의 문맥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발화시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다른 문장에 대해, {-더-}는 기준시점을 인식시로 옮김으로써, 발화시점에서 재해석하지 않은 채 상황을 인식한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느낌이 두드러지게 한다. 언어의 일차적 기능이 意思傳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의 발화는 '알림'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더-}가 갖는 이러한 효과에 의해 객관적 태도로 알리는 '객관적 전달, 또는 보고'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35]

또한, 기준시점의 이동에서 (나)의 측면이 부각될 때는 '回想'의 의미를 문맥적 의미로 갖게 된다. 기준시점의 이동에 의해 발화시와 인식시 사이의 時域을 건너뛰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회상작용과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으로서, 동일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기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꾸로 옆에 있는 기차가 後進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또는 지구에서 볼 때에는 마치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등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상작용은 결코 기준시점의 이동과 同値는 아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모든 상황이, 화자 자신의 의식적 행위까지도, 회상될 수 있지만 기준시점의 이동은 인식시에만 制限되기 때문이다.

(다)의 측면이 관련될 때는 '認識(知覺)'의 의미를 文脈的으로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기준시점의 이동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이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發話가 반드시 {-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더-}만의 특성이라 할 수는 없다. {-더-}가 쓰인 문장에서 인식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준시점이 인식시로 옮겨짐으로써 상황을 인식한 時點이(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直接的으로 關聯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발화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우라 하여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어떤 상황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현하면 인식시점이 직접 관련됨으로써 '인식'의 의미가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상의 의미들은 기준시점 이동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어느 한 측면이

[35] 이와 관련하여 柳東碩 (1981: 215)도 '話者가 자신이 認知한 사실을 認知한 그 時點으로 되돌아가서 말해 준다는 것은 認知時와 發話時 사이에 있을 수 있는 話者의 主觀的인 판단이나 해석을 排除하게 되어, 처음 認知한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意味를 갖게 한다'고 한 바 있다.

문맥에 따라 부각됨으로써 생겨나는 文脈的 意味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더-}는 여러 含蓄的 意味(implicature)도 갖는다. {-더-}의 본질은 기준시점을 인식시로 이동시키는 데 있으며, 따라서 {-더-}가 쓰인 문장은 인식시, 즉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이것을 {-더-}에 의해 '말하여지는 것(what is said)'이라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暗示되는 것(what is implicated)'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더-}의 含蓄的 意味인 것이다.[36] 이러한 함축적 의미 역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가)와 관련하여 현재시점(발화시)에서는 확실치 않다든가 잘 모른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어 '命題의 信憑性에 대한 無責任性'의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 申鉉淑 (1980: 116)은 질문의 대답에 /-더라/가 쓰이면 '信憑性'이 낮아진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28) '영희가 왜 갔니?'
'철수가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 (柳東碩 1981: 215-216의 예 (20)).

(28)에서의 대답은 '영희가 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37] 이는 {-더-}에 의해 기준시점을 발화시로부터 옮겨 표현함으로써 단지 當時의 상황만을 전달하고, 발화시 즉 현재시점에서의 화자의 판단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데서 생겨나는 含蓄的 意味로 볼 수 있다.

(나)는 두 시점 사이의 時域을 空白으로 남겨둠으로써 '의식의 단절, 심리적 거리감; 관심거리, 생생한 표현' 등의 含蓄的 意味가 생기도록 한다. 任洪彬 (1982: 457)은 이와 관련하여, '발화장면의 화자가 관찰시에서 발화시 전까지 이어지는 意識의 斷絶을 뛰어넘는 노력'에서 '回想'이라는 느낌이 비롯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의 단절'이 필연적 의미가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더-}는 '의식의 단절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발화시와 인식시 사이의 時域을 건너뛰는 것, 곧 기준시점의 이동이다. 이에 따라 발화시와 인식시 사이에 공백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공백은 상황에 따라 '의식의 단절'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심리적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때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치 발화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거나 또는 청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기준시점이 발화시에서 인식시로 옮겨짐으로써 '回想'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생겨나는 時域의 空白

[36] {-더-}가 쓰인 문장의 함축적 의미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37] 柳東碩 (1981: 216)은 이 대답의 앞에 '몰라'를 넣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다.

이 '意識 또는 關心의 斷絶'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대는 認識(知覺)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앎'의 의미와 '사태의 원인에 대한 무책임성'의 의미가 함축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을 함축함으로써 '새로 앎'(김차균 1980: 91, 柳東碩 1981: 222-225)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며, 아울러 인식의 의미가 두드러짐으로써 화자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태의 원인에 대한 무책임성'의 의미도 함축하게 된다. 화자 자신이 한 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이미 화자의 意識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서 인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화자 자신도 그때에야 알게 된 것이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함축적 의미들을 문맥적 의미와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더-}의 문맥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기 본 의 미		문 맥 적 의 미	함 축 적 의 미
기준시점의 이동	발화시에서의 인식의 유보	'객관적 전달' '보고'	'명제의 신빙성에 대한 무책임'
	발화시와 인식시 사이의 時域을 건너뜀	'회상'	'의식의 단절' '심리적 거리감' '관심거리' '생생한 표현'
	인식시에서의 상황에 대한 언급	'인식(지각)'	'새로 앎' '사태의 원인에 대한 무책임'

5. {-더-}와 문법적, 화용적 제약현상

끝으로 本稿에서 정의한 {-더-}의 의미에 의해 {-더-}가 쓰이는 문장들의 제약현상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 이러한 제약이 文法的 層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제약은 적절한 상황이 부여될 때 解消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의 부여'와 '필수적인 요소의 보충'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本稿의 입장이다. 다음 예를 보자.

(30) a. *철수가 태웠다.
b. 철수가 (시험지를) 태웠다.

국어에서 '태우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쓰이고 있는 (30a)는 비문법적이다. 이 경우도 (30b)처럼 적절한 話脈 속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30a)가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즉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문장이 문법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요소를 보충했을 때에만 그렇기 때문이다.

{-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우리는 {-더-}의 의미를 '기준시점을 발화시에서 인식시로 이동시킨다'고 정의하고, 이때 기준시점의 이동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지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지각)은 그 상황을 인식한 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必需的인 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認識의 對象이 아니거나, 不可能한 것일 때, 기준시점의 이동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더-}의 출현도 制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의 3.2에서 언급한 바 있는 '前提의 失敗'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라고 하였을 때, 이는 '전제의 실패'이지만 文法的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준시점의 이동도 가능하지만 인식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더-}의 쓰임이 제약을 받는 경우는 그 상황의 성격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준시점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상황의 성격 자체가 기준시점의 이동을 배제하고 있어서 {-더-}의 의미와 兩立 不可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제약은 문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화맥을 보충하거나 문구성요소의 적절한 통합에 의해 제약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여 '統辭意味論的 現象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30a)에 목적어를 보충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30a)가 기묘한 것은 통사의미론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더-}가 쓰인 예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다음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非同一主語 制約'이라고 불리워 왔던 예들이다.

(31) a. *내/네/그가 밥을 먹더라.
b. *나는 그 마을의 추장이 계속 권해서 할 수 없이 바퀴벌레를 먹더라.
c. *나는 며칠 전에 학교에 갔더라.

(32) a.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내가 밥을 먹더라.
b. 내가 제일 빨리 밥을 먹더라.
c. 나만 혼자 밥을 먹더라.

(31a)는 화자 자신의 의도적 행위에 {-더-}가 쓰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1b)에서 화자의 '意圖'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 자신의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미 화자의 意識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認識의 對象이 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상황이 인식의 대상이 아닐 때는 기준시점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더-}의 결합이 제약을 받으며, 이는 文法的 制約이다. (31c)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며칠 전에 학교에 간 것은,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이미 화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32)의 예들은 화자 자신이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非同一主語 制約이 성립하지 않는 예들이다. (32a)는 꿈 속의 상황으로서 의식 세계와는 별도의 세계에 속하는 상황이므로,[38]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의 결합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32b, c)에서 '제일 빨리, 나만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을 둘러 보고 '알게 된' 사실이므로, 그 알게 된 시점으로의 기준시점 이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同一主語 制約 이라고 불려 왔던 예이다.

(33) a. 나/*너/*그는 슬프더라.
b. 나/*너/*그는 슬프다.[39]
c. ?너/?그는 슬펐다.
(34) a. 나/*너/*그는 춥더라.
b. 나/*너/*그는 춥다.
c. ?너/?그는 추웠다.

(33a), (34a)는 (31a)와 정반대의 제약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33b), (34b)에서 볼 수 있듯이 {-더-}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同一主語 制約은 {-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김차균 1980: 91). 그러나, (33c), (34c)의 경우는 어색함이 훨씬 덜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더-}와 無關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40] (33b), (34b)는 감정의 체험 및 지각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그러한 체험이나 지각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화자가 주어일 때는 문

[38] 김차균 (1980: 92)은 '꿈 속에서는 그 꿈을 현실로 생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꿈 속의 세계는 적어도 발화상황과 이어지는 의식세계는 아니다.

[39] 이에 대해 이 논문의 심사자는 '영희야, 철수 그렇게 괴롭히지 마. 걔 지금 슬퍼.'를 제시하면서 현재시제라도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40] (43c), (44c)에 대해서 김차균 (1980: 92)은 비문법적으로 보고 있으며, 任洪彬 (1982: 448), 韓東完 (1984: 31-32)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주어일 때는 비문법적이다. (33a), (34a)에서도 다른 사람이 주어일 때는 화자에게 그 사람의 內面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지각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준시점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제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33c), (34c)가 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어의 과거의 감정, 지각에 대해 周邊狀況을 통한 判斷이 可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를 보자(앞의 (11)을 다시 옮긴다).

(11)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더라.
(35) *지금 보니 네가 입은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참 예쁘더라.

(11)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왜적을 물리치는 것을 화자가 직접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5)는 '지금 보니'라는 표현을 통해 인식시가 발화시와 동시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인식시가 발화시와 동시적인 경우는 기준시점의 이동이 있을 수 없으므로 {-더-}의 결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① 이미 화자의 意識 속에 존재하여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31a-c), ②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33), (34); (11)), ③ 인식시가 발화시와 동시적인 경우 (35) 등은 기준시점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더-}의 쓰임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때의 제약은 모두 '基準時點 移動의 制約'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文法的 制約이다.

다음으로 話用論的 制約을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자.

(36) a. ?삼촌,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디다.
b. ?어제 우리 집에 불이 났더라.

(36a, b)는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된 일로서, 기준시점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아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不適格한 것은 아니며, (36a, b)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화자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 관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이 있으나, 화자가 일부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으며, (36a, b)가 그러한 의미를 暗示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話用的 制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앞의 (21d)와 (22)를 다시 옮긴다).

(37) a.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더라.
b.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더라.
(38) a. ?나/너/그녀는 예쁘더라.
b. 나도 벌써 흰머리가 많더라.

(21) d. ?*어제 밖에는 눈이 왔더라.
(22) 어제 남부지방에는 눈이 왔더라.

위의 예들이 나타내는 상황 역시 모두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된 상황들이다. 따라서 기준시점의 이동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기준시점의 이동은 '認識(知覺)'의 意味를 부각시키고, 이에따라 그 이전에는 몰랐으며, 새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含蓄하게 된다. (37a, b)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사람이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마치 새로 안 것처럼 표현한 것이 부적절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어린이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 (38a)도 역시 새로 안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데서 생겨나는 어색함으로 볼 수 있다. (38a)는 非同一主語 制約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했던 예인데, 이는 화자 자신의 일을 화자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자 자신의 일이라도 모르고 있었던 일(예를 들어 (38b)와 같은 경우)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사이의 구별은 결코 분명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話用論的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1d)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1d)는 話者가 밀폐된 공간 속에서 하루종일 지내서 밖에 눈이 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이며, 또한 話者가 聽者도 역시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다.[41] 이는 (22)에서 확인된다. (22)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남부지방에' 눈이 온 것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하지 않고는 알고 있기가 힘들며, 따라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6. 마무리

本稿에서는 先語末語尾들의 배열순서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더-}와 {ϕ_2~-느-}의 대립관계에 의해 {-더-}의 의미를 '선행하는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게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지각)은 {-더-}의 기본의미가 아니라 기준시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前提임을 밝혔다. 나아가, 그 동안의 논의에서 제시되어 왔던 여러 의미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더-}

[41]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리라고 화자가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기본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생겨나는 文脈的 意味이거나 含蓄的 意味임을 보이고, 本稿에서 규정한 {-더-}의 의미로 이들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와 관련되는 制約現象들을 검토하여 그 성격에 따라 문법적인 제약과 화용론적인 제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本稿에서는 '-더라'가 '더-'+'-다'로 분석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이처럼 분석하지 않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음을 밝혀둔다.[42]

참고문헌

高永根 (1965) '現代國語의 敍法體系에 對한 硏究－先語末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國語硏究 第15號, 國語硏究會 (高永根 (1989, 143-224)에 '先語末語尾에 기댄 敍法範疇'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高永根 (1986) '敍法과 樣態의 相關關係,' 國語學新硏究, 383-399, 탑출판사.

高永根 (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김영희 (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國語學 10, 37-80, 國語學會.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회상형태소 「더」를 중심으로－,' 한글 169, 45-116, 한글학회.

김차균 (1985) '{았}과 {었}의 의미와 상,' 한글 188, 3-63, 한글학회.

南基心 (1981)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硏究, 國語學 硏究選書 6, 탑출판사.

남기심 · 고영근 (1985)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서정수 (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1, 97-127, 한국언어학회.

서정수 (1990) 국어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성낙수 (1975) '한국어의 回想文 연구,' 문법연구 제2집, 171-221, 문법연구회.

Sohn, Ho-min (1975) 'Retrospection in Korean,' 語學硏究 11.1, 87-103, 서울大學校 語學硏究所.

申絃淑 (1980) '/-더라/의 쓰임과 의미,'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제11집, 113-122.

Shin, Hyon-Sook (1990) 'A Sujectification Marker in Korean: *-tela*(-더라),' 언어 제15권 통합호, 365-388, 한국언어학회.

[42]本稿의 초고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진지한 토론에 응해준 연규동 · 박성현 · 신용권 등 同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沈在箕·李基用·李廷玟 (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柳東碩 (1981) "더'의 意味에 대한 管見,' 冠岳語文硏究 第六輯, 205-226,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이기동 (1989) '언어 주관성의 문제,' 한글 206, 177-208, 한글학회.
李基用 (1976) '時間論 : '지금'의 意味,' 語學硏究 12.2, 161-174, 서울大學校 語學硏究所.
李翊燮 (1978) '相對時制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第3輯, 367-376,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李翊燮·任洪彬 (1983) 國語文法論, 學硏社.
이창덕 (1988) "더'에 관한 문제,' 말 제13집, 195-21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任洪彬 (1982) '先語末 {-더-}와 斷絶의 樣相,' 冠岳語文硏究, 第七輯, 433-475,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장경희 (1983)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2, 293-313, 한국언어학회.
張京姬 (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硏究, 탑출판사.
정문수 (1983) '{더}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大田大學 論文集 第2輯, 5-32.
Chong, Hi-Ja (1990) 'Reconsideration on Tense in Korean,' 언어 제15권 통합호, 389-407, 한국언어학회.
최동주 (1988)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성호 (1987) '현대국어의 안맺음씨끝의 의미 연구 -특히 '었'과 '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현배 (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韓東完 (1984) '現代國語 時制의 體系的 硏究,' 西江大學校 國語國文學科 碩士 學位論文.
韓東完 (1991) '國語의 時制 硏究,' 西江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 論文.
韓在永 (1986) '中世國語 時制體系에 對한 管見 : 先語末語尾 {더}의 位置定立을 中心으로,' 언어 11.2, 258-284, 한국언어학회.
한현종 (1990) '현대국어의 시제체계의 수립과 그 제약조건,' 國語硏究 第99號, 國語硏究會.
허 웅 (1981)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허 웅 (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허 웅 (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Bybee, Joan L. (1985) *Morphology-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1981) 'On Reichenbach's approach to Tense,' *CLS* 17, 24-30.

Comrie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Ö.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Basil Blackwell.

Givón, T. (1984) *Syntax Volume* I—*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Lee, Hyo 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Ph. D. Dissertation, UCLA.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On the Meaning of the Pre-Final {-tə-} in Modern Korean —In the Case of Sentence-Final Position—

Dong-Ju Choi

There have been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on the nature of the pre-final ending {-tə-} in Modern Korean.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meaning (function) of a grammatical morpheme should be defined by opposi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meaning (function) of the prefinal {-tə-}, which has the opposition relation to {ϕ_2~n̈}, is 'the shift of the speaker's viewpoint; i.e., locating the speaker's viewpoint at the moment of experiencing the situation referred to'.

The shift of the speaker's viewpoint can be analyzed into three elements, 1) reserving the moment of speech 2) shifting to the moment of experiencing the situation 3) referring to the situation itself at the moment of experi-

encing the situation. When one of these elements is highlighted in the context, {-tə-} may have contextual meaning. In relation to 1), {-tə-} can express the meaning of 'telling of the situation objectively (as he/she experienced it)', in relation to 2), the meaning of 'retrospection'; and in relation to 3), the meaning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The shift of the speaker's viewpoint can have implicatures- 'not knowing the situation in detail', 'psychological distance', 'non-responsibility'- and these implicatures can also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above elements, respective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called 'non-equi subject constraint' is the constraint on the shift of the speaker's viewpoint. For the shift of the viewpoint, perceptual experience must be presupposed. In the case of the speaker's action, the volition already lies in his/her consciousness before perception, so it is not a situation that the speaker perceives. Accordingly, there can be no shift of the viewpoint, and {-tə-} cannot be used in this case.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